2012년 장평 성당 본당 사목지침

“순교 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사랑하는 장평 성당 교우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교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당신부로 부임한지 일년 여를 보내며 장평 성당 공동체에 조금은 친숙해 진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한해 201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본당 사목지침을 “순교 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로 정하였습니다. 주교님의 사목교서에서 드러나듯 순교 영성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뿌리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박해시절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그런 절박한 위치에서 신앙의 삶을 영위했던 신앙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 주교님 사목교서의 뜻입니다.

저는 주교님의 사목교서가 저희 본당 공동체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한 방편으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라는 표현으로 주교님 사목교서의 그 깊이를 더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발전한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주었던 한국교회의 특성이, 바쁜 현실과 세태의 변화 속에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평 성당에서 보낸 1년여 가까운 사목 경험을 통해, 우리 성당 공동체는 다른 성당이 지니지 못한 많은 장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참으로 하나된 친교의 공동체라는 점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정말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란 공동 운명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동 목표를 향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 안에 하나되어야 합니다. 나와 네가 어울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2년 새해를 맞으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

1.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
2. 모든 교우들의 1인 1단체 가입
3. 예비신자 인도 및 발굴
4. 냉담 교우 회두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5. 기타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알고 나눌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2012년은 진정 “순교영성을 바탕으로 참된 하느님의 공동체인 장평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림 제 3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본당신부 이창섭 아오스딩